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7



▶ 58회 예고
칼라따까 수상의 심복인 친위대 조장이 탁실라에 도착하자, 미리 가 있던 특사는 소요를 조종한다. 친위대 조장은 수시마 부왕에게 빈두사라왕의 귀국명령서를 전달한다. 그러나 수시마는 뜻밖의 소요 때문에 탁실라를 떠나지 못한다.

아쇼까, 형 수시마 때문에 갈등하다

아쇼까는 왕자별궁으로 가지 않고 다르마 왕비별궁에 머물렀다. 1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어머니 다르마와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비가따쇼까와 가능한 한 함께 지내면서 특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마음에 걸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가강으로 나가 기도하고 침전에 들러 문병하는 것밖에 없었다. 생사 운명은 오직 시바신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꼭두새벽에 가족 모두가 함께 강가강을 나가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비가따쇼까의 손을 잡고 걷던 다르마 왕비가 아쇼까를 뒤돌아보며 감격했다.

"아쇼까, 난 이 시간을 기다려 왔단다! 대왕님만 병석에서 일어나신다면 나는 더 없이 행복하겠구나."

"우리 가족이 모두 기도하니까 강가강의 시바신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에게 빈두사라왕의 안부를 물었다. 가족 중에서 비가따쇼까가 빈두사라왕을 가장 많이 알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가따쇼까야, 대왕님께서는 어떠시더냐?"

"대왕님께서는 곧 일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지만 궁중의원님 얼굴은 늘 어두워요."

강가강 모래밭에는 벌써 기도하러 나온 왕족들이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에 일산을 펴놓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갈매기 떼가 검푸른 어둠 속에서 흰 헝겊처럼 희끗희끗 날았다. 등불을 켜놓고 고기 잡는 배들이 듬성듬성 보였다. 화장터에서는 벌써 연기가 솟구쳤고 잠시 후에는 불길이 날름거렸다.

강물 속으로 들어간 아쇼까는 세수를 한 뒤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쇼까는 꾸날라를 낳아놓고 눈을 감은 첫째부인 빠드마바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꾸날라를 키워준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에게도 고마움의 기도를 했다.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동생 비가따쇼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했다.

이윽고 동쪽하늘에 희부연 날빛이 돌았다. 그러더니 동쪽 지평선에 붉은 놀이 번졌다. 강가강에 나온 왕족들이 일제히 일출 직전의 동쪽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아쇼까의 가족도 강물에 발을 담근 채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다.

브라흐민과 끄샤뜨리야 왕족은 일출 때까지만 강가강에서 기도했다. 그 다음은 바이샤 계급의 상인들이 강가강으로 들어갔고, 수드라 계급의 천민들은 강가강 저편 화장터 아래의 강물에 몸을 적셨다. 화장터에서는 타다만 시신을 강물에 던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독수리 몇 마리가 나타나 강물에 뜬 시신을 쪼았다.

기도를 마친 아쇼까 가족이 다르마 왕비별궁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반대편 쪽에서 두 마리의 말이 다가왔다. 말에는 칼라따까 수상과 라다굽따 제관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렸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왔습니다."

"저도 일정을 당겨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저희들은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옛 꾸루국과 앙가국을 순행하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빈두사라왕이 병석에 눕자, 대왕을 대신하여 옛 꾸루국과 앙가국으로 순행 나갔다가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바꾸어 왔다는 말이었다. 아쇼까를 만나는 것이 그곳의 현안과 민심을 파악하는 순행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순행 중인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와주시다니 고맙소."

"옛 꾸루국과 앙가국은 가깝습니다. 한나절이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라다굽따의 말 등에 오른 아쇼까는 내성 안에 있는 칼라따까의 저택으로 갔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의 저택을 방문하기는 두 번째였다. 어린 왕자 시절에 스승 목갈리뽓다띳사를 따라서 우연히 들렀던 것이 첫번째였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의 저택 앞에서 말했다.

"대왕님은 뵀소?"

"왕궁 침전으로 갔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라다굽따가 투덜거렸다.

"친위대장이 알현을 막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순행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될 것이오. 오후에 대왕님을 문병할 생각이오."

"부왕님, 고맙습니다."

칼라따까의 저택 2층은 라다굽따와 수시로 만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충직한 하인이 언제나 지키고 있었으므로 누구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다.

"부왕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상님과 제관님에게 감사드릴 일이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분께서 제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어머님에게 들었소."

"아, 그것은 비가따쇼까 왕자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라다굽따가 비가따쇼까의 공으로 돌렸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보다 솔직했다. 그러나 큰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련함에는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앞섰다. 짜파티와 짜이, 바나나, 사과 등이 나왔다. 하인들이 둥근 탁자 위에 조심하면서도 날렵하게 놓고 갔다. 뜨거운 짜이를 한 잔 한 뒤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 빠딸리뿌뜨라에 와 계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10여 년 만에 왕비님, 아내, 동생을 만나는 행복이 크다오."

"저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동안 변방에서 잊고 살았는데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오. 내게 주어진 특별휴가 기간만이라도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소."

"누구보다도 다르마 왕비님과 아상디밋따 부왕비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이오. 다만, 꾸날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소."

아쇼까는 꾸날라가 수시마 부왕을 보좌하라는 빈두사라왕의 명으로 탁실라에 가 있다지만,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사랑하는 꾸날라의 빈자리가 더 없이 크고 허전했던 것이다. 잠시 후 칼라따까가 말했다.

"부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이제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 꾸날라가 어떻다는 것이오?"

"왕궁에는 수시마 부왕님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저와 제관님 같이 아쇼까 부왕님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을 추종하는 신하들은 아쇼까 부왕님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까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동안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이 볼모로 가 있다는 말이오?"

아쇼까는 언성을 높여 물었다.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왕님도 동조했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을 탁실라로 보내라고 명했으니까요."

아쇼까가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그 바람에 사발에 놓여 있던 사과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아쇼까가 턱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신하들이 누구요?"

"친위대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비님을 찾아다니면서 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자들은 대왕님 유고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님을 부추긴 것입니다. 탁실라에 계신 수시마 부왕님을 이곳으로 오도록 말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친위대 조장이 저에게 보고한 사실입니다."

아쇼까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얼굴이 붉어진 아쇼까가 소리쳤다.

"내가 왕권에 욕심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수시마 형님과 나를 이간질시키다니!"

"진정하셔야 합니다, 부왕님. 우리도 이미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무얼 세워놓았단 말이오?"

"수시마 부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오시게 되면 결국 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수시마 부왕님께서 이곳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칼라따까의 얘기를 듣고만 있던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수시마 부왕님이 탁실라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형님을 감금하겠다는 것이오?"

"그것은 하수입니다. 수시마 부왕님을 감금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어 부왕님의 발을 묶어놓는 방법입니다. 소요를 진압해야 할 수시마 부왕님께서 어떻게 빠딸리뿌뜨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대왕님의 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탁실라를 떠나시지 못할 것입니다."

아쇼까는 대왕의 유고를 설정해놓고 말하는 자체가 언짢았다. 빈두사라왕의 아들로서 듣고 있기가 거북했다. 대왕 유고시 장자인 수시마 부왕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쇼까가 말했다.

"나는 특별휴가가 끝나면 웃자인으로 돌아가겠소. 수시마 형님도 탁실라로 돌아가셨소."

"부왕님,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송구합니다만 대왕님 유고가 생긴다면 마우리아왕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왕의 대업을 잇지는 못할망정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수시마 형님이 잘 해결할 것이오."

"저희들은 수시마 부왕님께서 마우리아왕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탁실라에 반란이 두 번 일어났을 때 누가 진압을 했습니까? 아쇼까 부왕님께서 탁실라로 가시어 두 번 다 진압하시지 않았습니까?"

칼라따까의 지적이 사실이었으므로 아쇼까는 대꾸를 못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 수상의 말씀은 우애가 좋은 두 부왕님 간의 이간질이 아닙니다.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이 걸린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칼라따까가 다시 말했다.

"아쇼까 부왕님, 사태가 이러하니 웃자인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빠딸리뿌뜨라의 안정과 평화가 더 우선입니다."

"알겠소. 그런데 나는 꾸날라가 보고 싶소. 방법이 없겠소?"

"걱정 마십시오. 친위대 조장에게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올 것을 지시해 두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직속부하 친위대 조장은 칼라따까가 오래 전에 매수한 자였다. 그러니 수시마의 운명은 탁실라에 먼저 가 있는 특사와 친위대 조장 손에 달린 셈이었다. 아쇼까는 형제간의 우애와 라다굽따가 말한 대의명분 사이에서 갈등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의 진심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충정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칼라따까의 저택을 나서면서 자신이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아 몸을 떨었다. 순간, 어쩌면 이제는 웃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뇌리를 스쳤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幻환
香밀작가의 신작!

지혜의 두 경전(經典)
반야심경, 천부경의 실상(實相) 진리(眞理)의 세계,
그리고, 무한 사유의 책이 나왔다.

密(밀)의 작가 최신작
幻(환)1 반야심경, 幻(환)2 천부경, 幻(환)3 사유(思惟),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환1은 반야심경 실상세계를 밝혔다. 환2는 천부경 성통광명 이천진리(理天眞理)의 세계를 밝혔다. 환3은 무한차원 이성(理性)이 깨어있는 지성(智性)의 세계이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84쪽 / 향 2권 316쪽 / 향 3권 352쪽 / 정가 각 25,000원

密밀 1, 2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35,000원
香향 1, 2, 3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23,000원
사유를 담은 가야금 1, 2권 달빛 담은 가야금 1, 2권 박명숙 저/신국변형판양장본/정가 각 20,000원(사유) 각 23,000원(달빛)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